지역 메아리

정읍시, 환경분야 기관평가 3개 분야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전북도 환경분야 기관평가에서 3개 분야가 우수기관(최우수 1, 우수2)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새만금수질개선 사업 평가 분야는 새만금유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시는 올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0만원을 시상했다. 시는 이 평가가 첫 시행된 2013년부터 매년 '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평가와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활동 평가이다.

시 관계자는 경유차 등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실적이 우수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올 한 해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 활동에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포상금 5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과 관계자는 "시에서는 앞으로도 환경분야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시행과 관리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서, '윤창호법' 중심 순회 비위 예방 교실 운영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전 직원 상대 순회 비위 예방 교실을 열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일부는 내년 6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을 중심으로 음주(숙취)운전 으로 인한 비위가 발생치 않도록 독려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음주운전(숙취운전)을 비롯 성 비위, 도박 등 고비난성 비위예방을 위해 진솔한 대화를 펼쳐 공직기강을 확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히 음주단속의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전 직원 합심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성재 서장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직업정신이 요구되므로 연말연시 신뢰를 떨어뜨리는 각 종 의무위반 사례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좋은 직장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대책 시급

부안군 행안면 서문로 사거리, 인도·회전교차로 등 전무해 보행자 안전 위협

부안군 행안면 서문로 사거리(부안경찰서 사거리)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당 구간은 부안제일고등학교와 부안중학교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의 보행도 많지만 인도는 물론 회전교차로 등도 전무해 보행자 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서문로 사거리는 매년 4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규모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한 접촉사고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더욱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 운전자는 해당 구간에서 접촉사고를 당한 뒤 사고 처리과정의 억울함을 담은 SNS 게시물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해당 구간은 좁은 차로로 인해 대형 차량들의 차선 침범이 잦고 도로 폭이 좁아 좌·우회전시 한 번에 회전이 불가해 몇 차례 전·후진을 반복한 뒤 빠져 나갈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부안군 행안면 서문로 사거리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보행자를 위한 인도 또한 매우 부족해 부안제일고등학교와 부안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보행시에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부안 제1·2농공단지 업체들의 공장진출에 따른 화물차량과 직원용 차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향후 제3농공단지 조성 완료로 기업 유치시 차량 급증으로 인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사고 발생률이 더 커 질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한 주민은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의 보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을 한 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가치 증명

최근 고창 해리천 인근서 천연기념물 '황새' 무리 발견

고창군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 무리가 관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고창군 생물권보전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해리천 인근에서 황새가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로부터 황새는 한반도에 고루 분포하며 우리 민족의 사계절과 더불어 살아온 텃새로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수렵과 환경오염 등으로 현재는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아 국제자연보호연맹에 세계적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돼 있다. 국내에서도 천연기념물 199호와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황새 출현에 대해 지역 자연생태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생태계 멸종위기종의 최적의 서식환경을 갖추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창군 해리천 인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 무리가 관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생태계 극상의 환경에서만 사는 황새의 출현으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편안하게 쉬었다 가고, 앞으로 더 많은 황새가 찾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조건을 조성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내년부터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본격 시행

정읍시 · 대한고속, 시행 관련 업무협약 체결… 요금 최고 50% 인하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대한고속(대표 김재두)은 지난 27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최고 50% 인하되어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 500원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이용 시에는 50원 추가 할인된다. 이번 '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구간요금제에 따른 정읍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대중교통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한편, 원거리 시외거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교통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통해 시민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두 ㈜대한고속 대표이사는 "구간요금제로 인한 승객과 기사 간 갈등 야기 등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을 것"이라며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이러한 불편사항을 모두 해결하고 나아가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앞둔 지금, 도내권에서 시행이 늦은 만큼 정읍시민들게 죄송한 마음이 우선 든다"며 "그만큼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정읍시 대중교통서비스가 전라북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27일에 음식물 줄이기 실적이 우수한 18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실시 된 이번 인센티브 지급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식 제고를 위해 2017년을 기준으로 올 1월부터 10월까지 세대 당 감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됐다.

평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RFID 장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 협약아파트 38개소가 대상이며 350세대 이상과 350세대 미만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350세대 이상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수성주공1차아파트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이어 시기주공아파트, 센트럴카운티아파트, 부영2차아파트가 우수 평가를, 부영1차 외 4개 아파트가 장려 평가를 받았다.

350세대 미만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신흥장미2차아파트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이어 신태인주공아파트, 상동현대2차아파트, 신성미소지움아파트가 우수 평가를, 유창2차파크맨션 외 4개 아파트가 장려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2017년 대비 35개 단지 중 29개 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체적으로 4%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도 RFID 종량제 사업의 확대 추진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교통오지지역의 교통복지 실현한다

부안군, 행복택시운영 협약 체결

부안군은 지난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9 행복택시 운영 설명회 및 협약서를 체결했다.

행복택시는 교통오지지역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이며 2019년 1월 1일 운영에 앞서 사업담사자인 마을리장과 기사 54명이 참여해 설명회를 청취하고 양자간 협약서를 체결해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부안군은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운영해오던 행복택시를 2019년에는 국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되며 버스정류장에서 마을경로당까지 500m 이상 28개 마을에 1일 2번(왕복), 주 3회를 운영한다.

행복택시는 승객 한명당 1000원을 내면 부안읍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택시요금이 부담스러워하는 어르신들이 500m가 넘는 정류장까지 걷는 불편을 사라져 인기가 높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행복택시, 통학택시, 단일요금제, 버스정보시스템, 국도 지능형교통신호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군민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